

서구, 풍암호수 악취 발생 녹조현상 해소에 집중

김이강 구청장, 녹조 관련 민원 해결위해 방문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은 최근 녹조 발생에 따른 악취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풍암호수 현장을 방문했다.

풍암호수는 계속된 가뭄과 건장마로 인해 악취를 풍기는 남조류가 급격히 번식해 장미원과 2목교 주변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공무원들과

함께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확인해 호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녹조 발생 민원이 집중된 장미원과 2목교 주변을 점검했다.

이날 풍암호수를 찾은 주민들의 불편 사항과 개선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자리에서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하며 호수공원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의 명품호수 공원이 되도록 구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현장에 함께 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로부터 중앙공원개발계획과 풍암호수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질개선을 위한 초기 비점오염수 배제와 맑은 물 공급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이강 서구청장은 풍암

호수를 품은 중앙공원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어울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부족한 어린이 놀이시설 보완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자에게 제안했다.

이에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주민 의견과 구청장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명품 중앙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남구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 프로그램 큰 호응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월산동과 사직동 주민들이 줌바 댄스 배우기를 비롯해 유산소 서킷 트레이닝 등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얻고 있다.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다채로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2년여 만에 재개했기 때문이다.

남구에 따르면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최근부터 월산동과 사직동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사직골 줌바 댄스와 순환운동 교실, 건강100세 집중관리 교실, 뇌건강 365 인지 교실 등 4가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프로그램은 줌바 댄스 및 스탠딩 스쿼트를 비롯해 유산소 운동인 서킷 트레이닝을 결합한 순환운동 교실 프로그램이다.

먼저 월산동과 사직동 주민 20여명은 지난 4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 신나는 음악과 함께 줌바 댄스를 배우고 있다.

다이어트 열풍이 일면서 춤과 피트니스가 적절히 혼합된 줌바 댄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근력과 유산소 복합 운동인 순환운동 교실 프로그램도 성황을 이루고 있다. 성인 여성 80명은 매주 2차례씩 스탠딩 스쿼트 외에 9가지 종류의 근력 운동과 에어보드를 활용한 유산소 운동기구를 활용해서 킷 트레이닝에 나서고 있다.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대사증후군 예방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이밖에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주민 15명은 폼롤러와 짐스틱, 스텝박스 등 소도구를 이용한 근력 강화 운동으로 건강관리에 나서고 있다.

/서기만 기자

광산구, 배동신 아동미술제 10월 수상 선정·11월 개최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지역을 대표하는 수채화의 거장, 배동신 화백을 기념하고 미술인재 발굴과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제32회 배동신 아동미술제를 개최한다.

공모는 회화, 서예, 문인화 등 총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외국인을 포함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원서는 광산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 11일부터 2개월간 공모 기간을 거쳐 9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작품을 접수한다.

회화는 이메일(diggl@korea.kr)로, 서예·문인화는 광산생활문화센터(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65, 2층)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광산구는 10월에 수상작을 선정하고 11월에 소촌아트팩토리 큐브 미술관에서 시상식과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문별 대상 수상자(3명)에게는 시상금 300만 원을 수여한다.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문화예술과(062-960-8289)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로 32회를 맞는 '배동신 아동미술제'는 신진 예술인의 등용문 역할을 하며 지역 미술문화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기만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예술시장에서 지역 예술가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NFT Art 기술경험 프로그램 'NFT 예술 196'을 운영한다. /동구청 제공

동구, 디지털 예술교육 'NFT 예술 196' 운영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예술시장에서 지역 예술가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NFT Art 기술경험 프로그램 'NFT 예술 196'을 운영한다.

동구 미로센터가 주관하는 'NFT 예술 196'은 기술 플랫폼이 주도하는 디지털 예술영역에서 지역 작가들이 미래 기술이 주도하는 예술 트렌드 변화에 적합한 기술 적응 능

력을 갖춰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NFT Art(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기본으로 한 디지털 작품)' 거래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시장과 창작자를 연결하는 브리지 프로그램이다.

'NFT 예술 196'은 NFT Art에 관심 있는 청년·중장년 작가(각 15명)와 예술가를 꿈꾸는 지역 청소년(1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아트 ▲피지컬 아트(원화) ▲NFT Art 전

환 기술 ▲NFT 거래소 등록·판매 등 NFT Art 전 과정을 총 8차시에 걸쳐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청년 작가(7월 5일~28일) ▲청소년(8월 2일~25일) ▲중장년 작가(8월30일~9월22일) 순으로 운영되며, 매주 화·목요일에 대상자별로 4주씩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기만 기자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실무교육 실시 강서구청 민원여권과장 최기웅 강사 참여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최근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 대상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보조금법' 제정 이후 달라진 내용을 전달, 원활한 보조금 사업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교육의 효율을 높이고자 관리부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회계감사 대상기관 예산 담당자 등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도 참석할 수 있게 했다.

강사로는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회계실무 카페' 운영자이자 예산회계실무 기본서 공저자인 최기웅 현 서울 강서구청 민원여권

과장이 참여했다. 최기웅 강사는 ▲지방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 ▲해당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부정수급자 사후 제재 강화 등 보조금 관리기준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한편 북구는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를 위해 하반기에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지침을 배포하고 지방보조금 사이버교육 의무이수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보조금 사업 지원과 지방보조금 관리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한적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2018년 곡성군 사진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